

# 방송법·노란봉투법...여야 쟁점 입법 '강대강' 대처

### 민주 주도 상임위서 잇단 처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도 심사 국힘 "입법 폭주, 다수 횡포" 반발 법사위 문턱 넘을지 관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쟁점 입법 과정에서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거침없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여소야대' 속 사실상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다수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야당 몫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들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과방위는 위원 20명 중 야당이 12명(민주당 11명·무소속 1명), 국토위는 30명 중 야당이 18명(민주당 17명·정의당 1명), 환노위는 16명 중 야당이 10명(민주당 9명·정의당 1명)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전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 시켰다.

안전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종 90일까지 숙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에 자당 출신인 무소속 박준우 의원을 포함시켜 안전조정위 개의 약 3시간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회에서 6명인 안전조정위는 대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면 이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양곡관리법 통과 때도 비슷한 전략을 활용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지난날 30일 야권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데, 야당은 노동3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토위에서도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의석수에서 우위에 선 민주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믿을 건 상임위 가운데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회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 2일 예정됐지만 열리지 않았던 본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힘'을 보여준 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및 표결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에 정기국회 일정 합의 당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외 처리할 법안이 없는데 본회의를 여는 건 맞지 않다고 맞섰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법사위를 열지 않아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 없었던 탓이다. 결국 김 의장은 1, 2일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8,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지만, 오는 7일 법사위 역시 여당 반대로 열리지 않을 우려도 여전히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박정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범죄로부터 국민 지켜야"

### 화물연대 파업 초강경 비판

###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불모로 만들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영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

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불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불공정 파업 중단" vs "공권력 휘둘리기"

### 화물연대 파업에 여야 대립각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여야는 휴일인 4일에도 격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흘을 넘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지금 민노총(민주노총)이 펼치고 있는 불법파업은 MZ세대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불공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MZ세대 노조원들이

서울 지하철의 정치파업을 끝냈다. 이 흐름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물결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586 정치세력,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의 정치인들은 좌파 기득권 카르텔을 사수하는 전위대"라며 "대한민국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관련해 "공권력 휘둘리기"

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윤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둘리기만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운임제 노정 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인가"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올라 31%

### 꺾임 조사...부정 평가 6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12%), '독단적/일방적',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9%), '외교'(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태원 참사 사건 대처 미흡'(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 '인사(人事)'(이상 5%)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공정/정의/원칙'(12%), '외교', '노조 대응',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8%),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6%), '결단력/추진력/집중', '전 정권 극복'(이상 5%) 순이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5%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3%), 한동훈 법무부 장관(10%), 홍준표 대구시장(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이상 3%),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이상 2%)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